



DAERYUN NEWSLETTER VOL.19

[대륜 뉴스레터] 탕비실 초코파이 절도, 2심에서 '무죄'될까

'장발장은 빵이라도 컸지' 초코파이 꺼내먹고 절도죄 유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은 굶주린 가족을 위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도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말이 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물류업체의 협력업체 직원 A씨가 탕비실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간식을 집어먹은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 측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문제 된 금액은 고작 1,050원에 불과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 노동조합 측이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둘러싼 법적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LEGAL INFORMATION

법-키피디아

대부이자율 제한과 불법추심 대응 등, 대부업법 개정 핵심 내용

체포 적합? 부적합? 체포적부심 청구해 신체의 자유 회복할 수 있어

청약, 전학 위해 주민등록 옮겼다고? 주민등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됩니다

NOTABLE CASES

대륜이 합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 0.2%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벌금 1천만원 감액

부친 명의 장애인전용 주차증 사용, 공문서부정행사 선고유예

'피해자 지적장애 이용 혐의' 준사기죄 혐의 피고인, 무죄 방어

진폐 사망에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 받아내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기업, 불가항력적 상황임 강조해 '내사종결'

INSIGHTS

언론 속 대륜

파이낸셜뉴스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

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금 조달 행위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유사수신은 그 피해액과 규모가 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법무 전문변호사 윤정현 변호사가 유사수신 사기행위의 대처법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드립니다.

글로벌에픽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 하려면

10만원 이하 소액절도죄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는 10만 7천 건을 기록하며 105년여 만에 10만 건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소액 절도죄 역시 일반 절도죄와 동일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습니다. 대륜의 이기준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액 절도죄의 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포츠서울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경찰이 처분 잘못 고지해 재측정 포기했다면 '무효'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행정처분에 대해 잘못 고지해 운전자가 재측정을 포기한 경우, 이후 이뤄진 처분은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를 대리해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한 신동훈 변호사가 본 사안의 쟁점에 대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머니S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될까

미국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일각에서 논의되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4) 신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륜의 김미야 미국 변호사가 E4 비자 신설의 가능성과 중소 협력업체의 비자 문제에 대해 짚었습니다.

CONTACT

조상수
대표총괄변호사 **T. 070-5117-3709**

김진원
대표총괄변호사 **T. 070-7510-1046**

조영삼
대표총괄변호사 **T. 070-7510-2014**

서봉하
최고총괄변호사 **T. 070-7510-1755**

강대희
수석변호사 **T. 070-5117-5510**

양보라
수석변호사 **T. 070-7510-2139**